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윤석곤*

The characteristics of Pacioli's Bookkeeping

Seok-Gon Yoon *

요 약

산술·기하·비 및 비례총람(Summa de Arithmetica · Geometria ·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이하 Summa)의 혼다 코우이찌(本田耕一, 1975) 번역본을 참고로 파치올리 부기론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파치올리 부기론이 생성된 시대 상황으로 Summa는 상업상 필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파치올리는 그가 기술한 절차 중 어떤 것도 자기가 창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당시의 부기지도서를 참고로 하여 집필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이다. 파치올리는 다만 복사인에 불과한 것이 된다.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은 종교적 문구의 사용, 재산목록의 사용,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연도 말의 손익계정 작성, 계정 마감전 장부의 검증, 시산표 작성, 장부에 기호를 붙이는 것, 본지점계정의 사용, 출장계정의 사용, 판매수탁계정의 사용, 관세관련계정의 사용, 유동성배열법, 저가주의 평가, 관청에 의한 장부 인증, 매년 결산 실시, 패션식 장부 사용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 사용하는 회계기법의 기초를 제공해준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회계실무에 영향을 주었고 회계이론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파치올리 부기론은 복식부기 발생 당시의 부기책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Compendium of arithmetic, geometry, and proportions and proportionality that was published in Venice in 1494 has been recognized as the first bookkeeping data in the world. Major characteristics of Pacioli's bookkeeping rule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as follows: All the necessary particulars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were provided in Pacioli's bookkeeping rules; List of property was described at the time of start of business; Three major books were used; Details of daily transactions we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Strike through was lined at each description in journal books, details of daily transactions, and list of property after entry of ledger; Amount columns were provided and Arabic numerals were used; Annual settlement custom was being initiated; Profit and loss account was prepared at year-end; Trial balance sheet was inevitably described; Books were verified prior to closing accounts; Control account was not established; Financial statements were not prepared and business analysis was made, too; Finished goods inventory was not adjusted; Mark was assigned to books; Inter-office account was prepared; Branch accounts and branch ledgers were prepared; There was entries of trust; Current arrangement was described; The principle 'Cost or market price, whichever is lower basis' was promoted; Petty cash system is explained; Checks and bills of exchange are used in bank account. As mentioned, characteristics of Pacioli's bookkeeping rules were reviewed; the signs of necessity for preparation of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balance sheet is found as well as preparation of trial balance sheet and the rules may be considered as a very excellent one in terms of the bookkeeping on initiating stage of double entry bookkeeping.

▶ Keyword : 파치올리부기(Pacioli's bookkeeping), 썸마(Summa),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 제1저자 : 윤석곤

· 접수일 : 2005.05.31, 심사완료일 : 2005.07.06

* 남서울대학교 경영세무학부 부교수

※ 이 논문은 2005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이탈리아의 복식부기는 13·14세기에 널리 용되고 있었던 부기법이다. 이러한 부기법을 기술하고 있는 최초의 책은 1494년 베니스에서 출판된 대수·기하·비율 및 비례 총람이다. 이것의 원어는 *Summa de Arithmetica·Geometria·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이며, 약칭으로 *Summa* 로 불리운다.

*Summa*는 당시 수학 지식의 요약서 및 일반 입문서로 저술되어 대수와 산술, 상업상 이용법, 부기, 화폐와 교환, 순수 기하학과 응용 기하학 등 5가지 논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이 책은 세계 최초의 부기에 관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한 파치올리(Luca Pacioli)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저술가이다. 그는 1445년경 Tuscany의 Borgo San Sepulcro에서 출생하였다. 파치올리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수도승으로부터 일반교육과 종교 교육을 받았다. 그는 20세가 되었을 때 베니스에 가서 한 부유한 상인의 세 아들 가정교사를 6년간 하였는데 그 곳에서 수학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한편, 상인들을 위하여 배로 상품을 운반하고 여행하면서 상업과 부기에 정통하게 되었다. 그는 저서를 통해 유럽전역에 복식부기를 보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파치올리는 기업경영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책은 상인들이 장부를 구비하고 계정을 설정하는데 준수해야할 필요한 규칙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무렵의 이탈리아는 문학과 미술 그리고 신학, 법학, 철학의 중심지 이었다. 유럽의 많은 학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9세기 사라센 제국에서 꽃피웠던 수학과 천문학, 의학, 화학 등의 학문을 폐쇄적 봉건시대의 서유럽은 13세기 경 까지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초기는 사라센 문화를 포함한 비잔틴 문화의 번역과 그 보급을 담당했던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피사, 파치올리 등 이었다. 유럽인 들은 로마 숫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에 의한 대수학의 보급이 없었다면 부기학이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파치올리는 다빈치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관계로 친구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파치올리가 다빈치 보다 유명한 존재였다. 다빈치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

처럼 파치올리도 수학, 건축학, 스포츠, 신학 등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유명한 학자였다. 그의 대표작 「대수·기하·비율 및 비례 총람」은 유럽 최초 수학 인쇄본 이다. 즉, 파치올리의 저서를 통해 유럽 각지에 이탈리아식 복식부기가 널리 보급 되었으며, 신대륙의 발견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서유럽으로 이동함에 따라 회계의 기록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 부기법은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파치올리 부기론은 소유주를 위한 정보를 마련하는데 기여 하였다. 그러나 기업과 소유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회계공준 및 회계기간의 개념이 인식되지 않았고, 단일의 안정된 회계단위가 결여 되어 있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치올리 부기론인 「대수·기하·비율 및 비례 총람」의 구성과 내용 및 특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현대 회계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1세기 회계의 중요성이 고조 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계의 역할 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파치올리 부기론이 생성된 시대 상황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파치올리의 생애와 부기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을 고찰한 후, 제4장에서는 현대 회계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며 결론을 지었다.

II. 파치올리 생애와 부기론의 구성

2.1 파치올리 생애

파치올리의 생애는 폴로렌스 동남쪽 80마일 거리에 있는 보르고 산 세풀크론에서 1445년 출생하였다.(정기숙외2, 2002) 그의 가정은 비교적 가난하였기 때문에 개인선생은 두지 못 하였고 종교 계통 학교인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다녔다. 이 시기는 이름 있는 가문들이 가세를 확고히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가문 및 도시국가들 간의 싸움이 빈번하여 평온하지 못한 시기였다.(신승표, 2002) 파치올리는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및 당시의 고전인 Dante, Cicero, Boethius의 작품과 Isidore를 공부하였다. 파치올리가 처음 대수학과 부기를 강의한 곳은 상인 Rompiasi의

집으로 소년들이 좋은 상인이 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1475년 교황Sixtus IV의 도움으로 Perugia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였다. 1490년대 초 일곱 살 아래인 Leonard da Vinci를 만나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으며, 1496년부터 1499년 사이 Leonard da Vinci는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을 그렸고, 파치올리는 De Divina Proportione를 저술하였다. 1502년도에는 플로렌스대학에서 강의 하였는데 Schifanoia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게임, 체스, 마방진(magic squares) 및 카드게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는 1510년에는 보르고 산 세폴 크로 수도원의 책임자가 되었다. 교황 Leo X세는 1514년에 그를 로마대학 교수로 임명하였다. 그후 1년후인 1515년도에 사망하였다. 파치올리는 평생동안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으며, 그 시대 발전에 대단한 공헌을 하였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2.2 파치올리 부기론의 구성

회계학의 고전으로 파치올리의 De Scripturis를 들 수 있다. 많은 고전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출처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이 존재하였다면 Summa에서 발췌하여 표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을지도 모른다.(박찬웅, 2002)

Summa인 「대수·기하·비율 및 비례 총람」은 모두 3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本田耕一, 1975)

제1장~제12장은 상인의 자세 및 교훈 등을 기술하였고, 제13장~제16장은 원장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제17장~26장은 상인들이 보통 접하게 되는 전문적인 문제 및 거래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27장~제34장은 회계장부의 마감과 결산절차를 다루고 있다. 각 장들의 구성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파치올리 부기론의 구성

구성	내용
제1장~제12장	상인의 자세 및 교훈
제13장~제16장	원장에 관한 내용
제16장~제26장	상인의 전문적인 문제 및 거래유형
제27장~제34장	회계장부의 마감 및 결산절차

*자료: 本田耕一, 「パチオリ簿記論」, 現代書館, 1975.

이정호, 「회계사상사」, 경문사, 1993. pp.75-95.

1. 제1장

본 장에서는 상인에게 필요한 주요 사항과, 베니스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원장과 분개장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조직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내용에서 사업을 잘 하려는 상인에게 필요한 사항으로 현금과 경제력 그리고 신용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베니스에는 「성실한 상인의 명예를 결코」라고 맹세하는 문구가 전해져오고 있다. 즉,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장에서는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제2장

본 장에서는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즉, 재산 목록의 문제점과 상인들간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상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상인들은 어떤 장부라도 「주 예수」라고 적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또한, 재산목록에는 제일 고가로, 내구성이 비교적 낮은 것부터 기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현금과 보석 그리고 가죽과 토지, 호수, 목장, 연못 등의 부동산은 동산과 같이 쉽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하여 기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제3장

본 장에서는 서식의 실제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재산 목록에 기입되는 항목을 서술형태로 설명되어 있으며, 재산 목록의 기입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서식의 실제의 예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제4장

본 장에서는 상인에 필요한 유익한 교훈을 담고 있다. 즉,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항목마다 상태와 종류 그리고 예금한 것인가, 대부한 것인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재산 목록의 모든 항목을 체계적으로 부호와 이름을 붙여 자세히 기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교훈 중에서 「베푸는 것은 재산이 없어지고, 신을 향한 묵상은 시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상인에게 훈계하고 있다.

5. 제5장

본 장에서는 회계처리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의 대략을 정리한 조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상업체의 주요 장부에 대하여 기술한 장이다. 주요 부분은 일반적인 거래 실무와 당점 전체의 실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장부는 제1장부인 일일거래 내역서, 제2장부인 분개장 그리고 제3장부인 원장으로 나누었다.

6. 제6장

본 장에서는 일일거래내역서 또는 메모장, 일계표라고 불리는 제1의 장부에 대한 의의, 기장방법과 기장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장부를 다 기입하지 않아도 1년에 1회 결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십자가 기호를 붙여 순서가 틀리지 않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면, 「성십자호 일일거래내역서, 성십자호 분개장, 성십자호 원장」 등으로 구분 하였다.

7. 제7장

본 장에서는 모든 상업 장부를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와 인증의 이유와 인증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즉 「장부 인증의 필요성으로 상무관리에게 모든 장부를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하였다. 상무관리는 화폐와 증량단위가 어떤 종류인가 (예: 리라와 피초로 등) 어떤 단위로 거래 되었는가를 알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모든 장부는 도장을 찍어 증명하여 집에 보존하였다.」 라고 기술하였다.

8. 제8장

본 장에서는 일일거래내역서의 기입방법과 실제의 예를 기술하고 있다. 즉, 전액 현금 거래인가, 일부 현금 거래인가, 일부 외상인가를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거래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직물을 1필당 12 다키트에 매입한다고 가정한다면, 거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은 루포니씨로부터 브레스차산 흰생의 천을 20필 매입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9. 제9장

본 장에서는 상인들이 관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매입의 9가지 방법과 매입하기 알맞은 시기의 상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매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밀가루, 연맥(말이 먹는 잡곡), 포도주, 소금 그리고 도축장에서 가죽이나 비계를 샀을 때는 외상으로 사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파는 사람은 그 계절에 생산하는 밀가루를 사는 사람에게 팔 것을 약속한다.」 등이 예시 되어 있다.

10. 제10장

본 장에서는 제2의 상업 장부인 분개장의 본질과 올바른 기장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분개장은 일일거래내역서에 붙인 것과 같은 기호를 붙여야 하고, 페이지 수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각 페이지의 처음에는 연대와 일자를 기록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재산목록 모두의 사항을 연속해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문서는 오래된 상자안에 끈으로 묶어서 작은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고 분

개장의 기입은 깨끗하게 조직적으로 기입해 정돈되어야 하고, 너무 길거나 간략해도 안 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11. 제11장

본 장에서는 베니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개장에 기입하는 경우 하나는 차변 이라고 불리고, 또 하나는 대변 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개의 용어는 언제나 함께 분개장에 기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2. 제12장

본 장에서는 분개장에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제의 예를 들고 있다. 즉, 「현금은 돈 또는 지갑을 의미하고, 자본은 소유하는 재산을 집계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상업의 원장과 분개장에 기입하는 경우 현금은 항상 차변에 두고, 자본은 항상 대변에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을 대변에 두는 것은 상업관리에 있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분개장 기입의 형식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13. 제13장

본 장에서는 제3장부인 원장의 작성방법과 색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으로 분리해서 배열하는 방법과 원장의 기술 방법인 알파벳순과 목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4. 제14장

본 장에서는 분개장에서 원장으로 전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분개장에서 원장에 전기하는 이유와 분개장의 기입을 말소하는 방법, 분개장의 각 기입 끝에 적는 원장의 페이지 수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5. 제15장

본 장에서는 원장의 차변과 대변에 현금과 자본의 항목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현금의 최초 기입은 차변에, 자본은 대변에 원장 전기 한다. 그리고 원장에는 계산된 연수(年數)를 기입한다. 즉 알파벳을 사용해서 Mccc Lxxxx iii 등과 같이 적어둔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16. 제16장

본 장에서는 재산목록 또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기록에서 상품을 원장의 차변과 대변에 어떻게 알맞게 기장할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다. 즉, 「당신의 사적인 물품 4개의 항목인 은제품, 린넨, 솜이불, 의류를 재산목록에서 분개장에 쉽게 전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였다.

17. 제17장

본 장에서는 관청과의 거래시 기장 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즉, 6개의 구청에 의해 관리되는 베니스의 재정부 공영은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재정부 예금계, 피렌체에 있는 다른 은행, 제노바의 결혼 지참금 은행, 다른 관청과 관공서와 거래할 경우 항상 당신의 계정을 충분히 주의해서 기장해야 한다. 그리고 서기의 자필이 차변과 대변에 바르게 적힌 증서를 받으세요. 주의해서 이 충고를 잊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기술 하고 있다.

18. 제18장

본 장에서는 베니스 세관과의 기장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일일거래내역서, 분개장, 원장예의 기입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기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11월 某日 차변, 베레르모산 설탕은 대변, 메시나의 썬안 안토니씨. 몇 상자 몇 덩어리에 대해 중요한 것 몇 리라, 100당 몇 다캇트, 총액 몇 다캇트」라고 기술 하고 있다.

19. 제19장

본 장에서는 3개의 장부. 즉, 일일거래내역서, 분개장, 원장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현금에 의해 지불되는 상품의 어떤 기장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과 같은 계약에 대해 현금과 외상으로 지불 하는 방법, 어음발행과 은행대체에서 이루어지는 지불을 주요 장부에 기입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0. 제20장

본 장에서는 교환거래 및 조합 등에 있는 상업 경영상 잘 알려진 특수한 기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이것들을 상업 장부에 정연하게 기입하는 방법과 교환과 복합 교환에 대해서 그리고 외상에 의한 교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21. 제21장

본 장에서는 조합이라고 하는 계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규약과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계를 각자의 장부에 어떻게 기술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2. 제22장

본 장에서는 경상비용과 임시비용 그리고 영입비, 지배인과 제자의 임금과 같은 각종 경비의 기장 규칙에 대해서 그리고 잡다한 기입을 장부에 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3. 제23장

본 장에서는 자기 관리 또는 타인 관리로 맡긴 상점의 기장에 대하여 이는 규칙과 방법 그리고 점주의 기본 장부와 상점의 장부를 분리해서 기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4. 제24장

본 장에서는 증서에 대한 은행의 기장과 분개장과 원장에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그 의미와 그것을 적는 장소, 환어음에 대해서 당신이 상인일 경우, 당신이 은행가일 경우와 결재 끝난 환어음의 영수증」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25. 제25장

본 장에서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하는 말로 취급되는 원장의 습관이 되고 있는 어떤 별도의 계정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별도의 장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6. 제26장

본 장에서는 자신의 출장거래와 위탁한 출장거래를 장부에 적는 방법과 그 때문에 발생하는 것 때문에 2개의 원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7. 제27장

본 장에서는 손익과 손실 혹은 손익금과 결손금 이라고 불리는 잘 알려진 계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계정의 원장에 기록방법과 다른 계정처럼 이것이 분개장에 기입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8. 제28장

본 장에서는 원장의 끝줄까지 다 썼을 때 원장계정의 이월방법과 원장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잔고, 전기, 장소(殘高, 轉記, 場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9. 제29장

본 장에서는 각 연도의 장부를 마감하지 않는 경우에 원장의 매일 발생하는 기입들 간의 연도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0. 제30장

본 장에서는 청구된 채무자에 대해서 그리고 상품의 모든 관리를 맡겨서 제일 증시해야 하는 그의 고용주에 대해서 어떤 계산서로 정리해야하는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31. 제31장

본 장에서는 부주의로 인해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 있지만,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기장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입을 취소할 것인가와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2. 제32장

본 장에서는 장부의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구 원장에서 신원장으로 이월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원장과 분개장, 일일거래내역서와 그 원장내부의 불일치와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3. 제33장

본 장에서는 장부의 심사중, 즉, 장부의 결산 중에 일어난 거래의 기록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그 시기의 어떤 것은 구 원장에 쓰면 안 되고, 다시 써서도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4. 제34장

본 장에서는 구 원장의 모든 계정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그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잔고를 대조한 차변과 대변의 총계의 요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5. 제35장

본 장에서는 자세한 기록과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 그리고 편지, 친서, 증서, 영수증, 판결문과 다른 서류를 어떻게 둘 것인가.와 기록부와 중요서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6. 제36장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기술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내고 간략한 내용에 의한, 지금까지 쓰여진 모두에 대하여 유의해야하는 결론 또는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III.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정리했다.(本田耕一,1975. 片岡義雄,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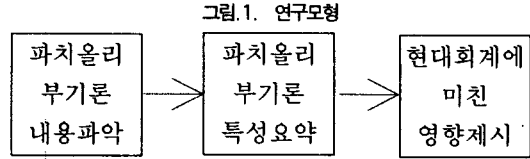


표.2.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

특 성	해당 장부
1.종교적 문구 사용	제6장, 제15장
2.재산목록 작성	제2장, 제5장
3.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제5장, 제20장
4.연도 말 손익계정 작성	제25장, 제32장, 제34장
5.계정 마감전 장부 검증	제32장
6.사산표 작성	제34장
7.장부 기호를 붙임	제6장
8.본지점계정 사용	제23장
9.출장계정 사용	제26장
10.판매수탁계정 사용	제36장
11.관세관련계정 사용	제17장, 제18장
12.유동성배열	제2장
13.자가주의 평가	제12장
14 관청의 장부 인증	제7장
15.매년 결산 실시	제6장, 제22장, 제29장
16.괘선식 장부 형식 사용	제13장

*자료 : 本田耕一, 「パチヨリ簿記論」現代書館, 1975.

片岡義雄, 「パチヨリ簿記論の研究」. 森山書店, 1963.

3.1 종교적 문구의 사용

파치올리는 저서에 「수도사 루카스」라고 서명하고 있는 것처럼,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속하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 일 것이다. 제6장에서, 부기의 순서를 표시한 성(聖)십자가기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 교도의 사이에서는 장부의 처음에 어떤 빛나는 기호를 붙이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 기호는 모든 정신적인 적을 도망치게 하고 그 기호 앞에서는 모든 악마의 무리는 확실히 벌벌 떤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제15장에서는 원장 기장 예(例)의 처음에 주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다.

3.2 재산목록의 사용

파치올리 부기론 중 제2부가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고, 제1부는 재산목록만으로 되어 있다. 즉, 제2장의 제목에는 「재산목록을 기술한다. 이 논설의 주요 제1부분에 대해서」라고 적혀있고, 제5장의 제목은 「이 논설의 주요 제2부인 회계처리」라고 적혀있다. 즉, 상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인 것이다. 라고 제1장에 적혀 있다. 재산목록은 매 년도에 작성되지 않았고 폐업이나 유산상속 등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되었다.

3.3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제5장에는 「영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분개장과 원장만이 사용되는 일도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일일거래내역서는 사용되지 않은 일도 있었으나 후세와 비교하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유는 아직 부기 지식의 보급이 늦어서 종업원 가운데 분개장에 제대로 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적었다고 하는 것과 당시 베니스에서는 각종의 화폐가 혼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거래내역서에 그대로 단위로 적고, 분개장에는 그것을 1종으로 통일해서 다시 적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제20장에서 「일일거래내역서에는 당신이 바라는 어떤 종류의 화폐로 적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후에 분개장과 원장에 전기하고 당신이 선정한 표준 화폐의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3.4 연도 말 손익계정 작성

제25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연도 말에 모든 관계계정이 마감될 때 그러한 계정의 잔고를 손익계정에 대체 한다. 제32장에서 처럼 손익계정의 잔고는 그 때 자본계정에 대체 된다」 그리고 제22장에는 「손익계정은 상인이 항상 자신의 자본액을 알고 결산시에 얼마의 손익이 있는지 알기 위해 필요하다.」 당시에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성적을 알기 위해서 손익계정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손익계정에 대체되는 계정과 그대로 새로운 장부에 이월하는 계정의 구별에 대하여 제34장에 기술되어 있다.

3.5 계정 마감 전 장부 검증

제32장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분개장의 최초의 기입부터 시작해서 기입된 원장의 페이지 수를 먼저 기입하고, 차변 다음에 대변의 순서로 읽도록 종업원에게 명하세요. 그의 호명한 원장의 페이지 수를 찾고 그가 읽은 기입의 종

류, 즉, 내용과 누구에 대한 것인가, 금액은 얼마인가, 그것이 같은 것인가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위의 절차는 또한 채무자계정의 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도 같다. 계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것과 원장과 분개장, 일일거래내역서, 그리고 모든 거래의 기입한 내용과 기록한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3.6 시산표 작성

제34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차변과 대변에 관해서 각 계정을 합계하고 항상 이월되는 금액이 적은 측에 더한다. 이것은 잔고를 같은 원장의 다른 페이지에 이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각 계정의 잔고를 시산표에 적고 옮기는 것과 같다. 「결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조를 한다. 즉, 제1장의 중앙의 오목한 종이에 십자 원장의 차변 항목 전부를 합계해서 좌측에 기입하고, 그리고 그 대변 항목은 모든 항목을 합계해서 우측에 기입한다. 차변 항목의 모든 합계를 총합계라고 칭하고 대변 항목을 모두 합계한 것도 총합계라고 한다. 이것들을 요약한다. 제일 처음에 차변 총합계를 내고 다음으로 대변 총합계를 낸다. 그리고 나서 만약 두 개의 총합계가 같다면, 원장은 바르게 유지된 것이고, 바르게 결산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3.7 장부에 기호를 붙임

제6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2장부에는 최초로 붙인 기호와 다른 기호를 붙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때에도 당신의 거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일자도 필요하다. 계속되는 장부에는 알파벳순으로, 제2에는 A와 제3에는 B, 그렇게 계속해서 기호를 붙였다. 그리고 십자기호가 붙인 최초의 장부1조를 「십자일일거래내역서」 「십자분개장」 「십자원장」 등으로 확인하였다.

3.8 본지점 계정의 사용

제23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집에서 떨어진 곳에 지점을 갖고 있고, 그 지점이 당신의 집(본점)에서 매일 상품을 공급 받고 있다면, 계정을 이렇게 기록하세요. 당신의 장부에는 지점을 차변에 기입하고 당신이 공급한 상품을 항목마다 대변에 기입한다.」

3.9 출장 계정의 사용

제26장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출장거래에는 통상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직접 자신이 하는 것과 당신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출장계정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발생한다. 당신이 스스로 출장을 가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출장을 가든지 어느 쪽이든 이중의 장부를 항상 만들어 두어야 한다. 하나의 원장은 집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출장갈 때 휴대하고 간다.」

3.10 판매수탁 계정의 사용

제36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약 상품이 위탁판매 또는 위탁교환을 위해서 당신에게 보내진 운송료, 관세, 적하료, 보관료, 그의 다른 비용을 그 상품목록에 대해 지불한다면, 위탁자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현금을 대변에 기입한다.」 이것은 위탁자의 인명계정에 기입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판매 수탁 계정과 같은 것이다.

3.11 관세관련 계정의 사용

제17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베니스에 있어서, 외국과의 많은 거래를 유지하는 습관처럼 당신이 외국과 판매하고, 수출입하는 상품에 관해서의 수세관(收稅官)과 과세관(課稅官)과의 계정처럼 상품에 대해 2% 그리고 1%, 4% 등을 지불하는 검사관의 관청과 장기의 구조와 같은 계정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제18장에는 「어떤 사람이 이런 관청과 계정을 유지하려고 원할 때는 그 자금을 해당하는 어떤 비율의 금(金)을 공영은행에 대부하고, 예금한 돈을 차변에 기입한다.」 세관창고로부터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상품은 꺼낼 수 없었다.

3.12 유동성 배열법의 사용

제2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산과 부동산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고가로, 내구성이 비교적 낮은 것부터 기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가옥과 토지, 호수, 계곡, 연못과 같은 부동산은 동산과 달라서 내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속하는 것은 현금과 보석 등이 있다.

3.13 저가주의 평가

제12장에 다음의 문장이 있다. 「분개장에 기입하는 경우 당신이 재산목록에 적었다가 관계 있는 모든 세목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 지식으로 각각의 시가를 불

이세요. 당신은 보통으로 쉽게 기장 하세요. 가난한 상태를 보다 부유하게 보이는 것은 잘못으로 즉, 그 가치를 24 보다도 20 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것은 당신이 이익을 정정하는 점에서 보다 좋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3.14 관청에 의한 장부 인증

제7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내가 상업 장부를 부수적으로 인증할 필요성을 느낀 모든 지방에서 예를 들면, 페르시아에서는 고용된 집정관 같은 일정한 상무관 리에게 모든 장부를 제출하는데 그것은 좋은 습관이다. 이러한 장부는 당신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기록한 장부를 상무관 리에게 설명해야 한다. 같은 식으로 상무관 리는 화폐와 중량단위가 「리라와 피초로」 「리라와 구룽소」 「다캣트와 리라」 「후로린과 리라」 등의 단위나, 온스, 타리, 테나로, 그랜 등과 같은 단위로 거래가 기장 되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서기는 그 관청의 이름을 걸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당신의 장부 최초에 적고, 그 정당함을 설명 할 것이다.」

3.15 매년 결산 실시

제6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러 지방의 상인들은 장부가 전부 가득 차지 않아도 연 1회는 장부를 결산하도록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것으로 장부 갱신의 수속에서 년도 결산 수속의 습관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2장에는 「연말에 임시비를 얼마 사용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별도의 계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적혀있다. 제29장에서 파치올리는 매년도 결산을 장려하고 있다. 「매년도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이고, 당신이 다른 사람과 조합을 만들고 있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3.16 패선식 장부 형식의 사용

제13장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만약, 리라, 소루도, 테나로, 피초리(화폐단위)를 분리해서 적는다면, 4개의 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리라의 앞에 차변과 대변을 관련 짓는다. 기사의 페이지 수를 두기 위해 별도 1개의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일자를 두도록 2개의 선을 그으세요.」 라고 기술되어 있다.

VI. 파치올리 부기법이 현대회계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1494년에 출판된 산술·기하·비 및 비례총람(Summa de Arithmetica·Geometria·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이하 Summa)를 本田耕一(1975)가 원전을 번역하였다. 본 연구는 번역본을 참고로 파치올리 부기론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파치올리 부기론이 생성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Summa는 상업상 필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파치올리는 그가 기술한 절차 중 어떤 것도 자기가 창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가 당시의 부기지도서를 참고로 하여 집필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견해를 확대 해석 하면, 파치올리는 다만 복사인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0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파치올리의 저서를 손에 넣은 모방 저술가들은 Summa보다 뛰어난 저술을 세상에 발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복식부기의 해설서로서 세계 최초의 인쇄본인 이 책은 그 저자의 능력과 생존했던 시대적 배경에 힘입은 바가 컸다. 파치올리의 뛰어난 점은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자체는 개별적으로는 평범하였을지라도 이들 특성들이 한 사람의 정신속으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파치올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저서는 실무중심적이었다. 즉, 모든 계정과 장부를 처리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계교육의 수단으로서 이 책은 다음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회계장부와 분개에 대한 통합된 모델이 없고, 둘째, 실제로 직면하게될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차변과 대변을 식별하는 가이드로 적절하지 못하며, 원장의 대차를 일치시키고 마감하는 절차에 대한 해설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박찬웅, 2002)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색인 재산목록의 사용,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연도말의 손익계정 작성, 계정 마감전 장부의 검증, 시산표 작성, 장부에 기호를 붙이는 것, 본지점계정의 사용, 출장계정의 사용, 판매수탁계정의 사용, 관세관련 계정의 사용, 유동성배열법, 저가주의 평가, 관청에 의한 장부 인증, 매년 결

산 실시 등은 오늘날 사용하는 회계기법의 기초를 제공해준 중요한 내용이다. (Michael Chatfield, 1977)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오늘날 자본시장의 발달과 기업경영규모의 확대로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회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학규, 1999, 윤태화, 1999, 이정호, 1993). 첫째, 현대 회계의 실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분개장, 일기장 등은 유럽 및 남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 영향을 주었다. 파치올리가 기술한 자의적인 항목인 전기의 표시, 날짜의 위치, 원장과 분개장의 마감 등은 수 백년 동안 정확하게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Summa는 출판 후 100년간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회계실무의 대부분은 파치올리 부기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복식부기가 처음부터 최종적으로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회계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파치올리는 자본주와 자본주 지분을 강조하고, 손익총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차변과 대변의 좌우 대조적인 계정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복식기입 원리를 수학적 논리를 해명하기 위하여 회계의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1] A.C.Littleton & B.S.Yamey., Studies in the History of Accounting., Richard D.Irwin, INC., Illinois, 1956.
- [2] Michael Chatfield., A History of Accounting Thought.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 revised edition, 1977.
- [3] T.A.Lee, A. Bishop & R.H.Parker., Accounting Histor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A Remembrance of Luca Pacioli. Garland Publishing, INC. New York and London, 1996.
- [4] 파치올리簿記論, 本田耕一, 譯, 現代書館, 1975.
- [5] 파치올리簿記論의 연구, 片岡義雄, 著, 森山書店, 1963.
- [6] 김학규, 회계정보사, 한국OА학회논문지, p.81.1999.
- [7] 박찬웅, 회계사연구, 서울대학교회계연구회, 영화조세세무연구소, pp.149-177. 2002.

- [8] 신승묘, 회계사연구, 서울대회계연구회, 영화조세통람사, pp.101-113. 2002.
- [9] 이정호, 회계사상사, 경문사, pp.63-73. 1993.
- [10] 정기숙외2, 회계사상과 회계기준의 발전, pp.75-95. 2002.
- [11] 윤태화외1, "정부회계에 기업회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한 고찰", 한국OA학회 논문지.p.164. 1999.
- [12] 김학규, 회계정보사, 한국OA학회논문지.p.81. 1999.

저자소개



윤석곤

1997년 8월 세종대학교 경영학박사
1994~현재 :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세계교육